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준다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태 계기 불법행위 근절 추진 최대 1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지역화폐 등 지급

익산시는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태를 계기로 시민과 함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물질(폐수·가축분뇨 등)을 무단으로 유출시키는 행위, 폐기물을 적법하지 아니하게 처리하는 행위, 악취

소음 등 규제기준을 초과한 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익산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와 함께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익산시 거주 주민의 신고에 의해 환경오염행위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선고유예, 행정처분 결과 등에 따라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포상금은 10만원이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

이상은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지급상한은 누구나 월 100만원, 연간 최고 1200만원까지다.
익산시 관계자는 “환경정책에 대해서 시민이 공감하고 제압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정읍시-첨단과학산업단지 연결도로 4차선 확장 개통

정읍시의 3대 국책연구소가 있는 첨단과학산업단지과 정읍시가지지를 잇는 연결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개통됐다. <사진>
정읍시는 국도1호선 신원교차로에서 전북과학기술대학교까지 1.4km의 도로가 폭 20m 4차선 확장공사형 개량사업을 거쳐 개통됐다고 6일 밝혔다.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잇는 이 도로는 총사업비 12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6년 실시설계 완료 후 2017년 7월에 착공한 지 3년여만에 개통됐다.
정읍시는 해당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등 3대 국책연구기관의 접근성이 한층 향상되고 물류비용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용산호와 내장산리조트 등의 접근성도 향상돼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앞으로도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주요 도시계획도로를 신속히 개설해 시민 모두가 시내 곳곳의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동학혁명 성지’ 고창에 전봉준장군 동상 세우자”

군민 모금운동 본격화...농협·공음면 이장단 기금 기탁

‘동학혁명의 성지’ 고창에 전봉준장군의 동상을 건립하기 위한 군민 성금 모금운동이 본격화 됐다. 고창지역 농협들의 성금 기탁을 시작으로 공음면 이장들이 가세했다.
6일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에 따르면 공음면 이장단협의회(협의회장 정경열)가 이날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공음면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인 무장포교지(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가 있는 동학농민혁명 성지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동상 건립을 위한 성금 1호로 고창지역 농협들이 1000만원을 기탁했다. 참여 농협은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진기영), 고창농협(조합장 유덕근),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욱),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성), 대성농협(조합장 김민성), 흥덕농협(조합장 백영중), 고창부안축협조합(조합장 김사중) 등이다.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는 최근 기부금 모금 등록을 마치고 성금을 모금 중이다. 기간은 내년 9월15일까지다.
건립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동상 디자인, 설치 수량, 설치 위치 등을 결정해 2022년에 전봉준장군 탄생 제166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동상 제막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 전봉준장군의 출생지다. 이곳에서 ‘무장포교문’을 선포하면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봉준장군 관련 시설물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고창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봉준장군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동학농민 성지 의향 고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유족회,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진운식 동상 건립위원장은 “동상 건립을 계기로 일제의 침탈과 봉건 지배에 맞서 싸운 전봉준장



고창군 공음면 이장단협의회가 6일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군의 일을 기리고 민족, 인권운동의 효시인 동학 농민운동의 시대적 의미를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순창군이 진행하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참가자들이 ‘단경왕후를 기린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고창 부곡리 고인돌’ 전북도 문화재 지정

의례용 제단까지 마련된 탁자식 구조...고고·학술 가치 뛰어나



전북도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된 ‘고창 부곡리 고인돌’. <고창군 제공>

고창군은 ‘부곡리 고인돌(芙蓉里 支石墓)’이 제8차 전북도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전북도 지정 문화재(기념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부곡리 고인돌은 고수면 부곡리 강촌마을 인근 고수천변의 낮은 독립된 구릉에 자리한다.
이 고인돌은 발굴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처음 확인된 희귀한 형식으로 지상식 무덤방과 함께 저분구형의 묘역시설과 의례용 제단까지 마련된 탁자식으로 확인돼 고고·역사·학술 가치가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됐다.
저분구형은 무덤방 주위로 강돌과 깎돌을 쌓아 만든 낮은 언덕 형태의 무덤형식이다.
고인돌 구조는 판관한 석재(장벽 각 2매, 단벽 각 1매)를 사용해 무덤방을 축조하고 그 위로 덮개돌(크기 257×220×70cm)을 덮은 탁자식 구조다. 단벽은 훼손돼 없어졌으나 북쪽에서 단벽의 흔

적이 확인돼 평면 ‘교’자 형태의 무덤방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묘역시설은 벽석 축조 후 강돌과 작은 깎돌들을 이용해 단면은 저분구형태이고 평면은 장방형(490×370cm)이다. 또 묘역시설 북쪽으로는 의례용 제단으로 추정되는 방형의 돌출부(156×155cm)가 확인됐다.
지역에 분포하는 1600여 개의 고인돌 중 탁자식은 6기 정도의 소수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곡리 고인돌은 탁자식이며 묘역시설과 의례용 제단이 함께 마련된 독특한 형식구조로 청동기 시대 권력자의 무덤이자 제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축조기술과 변화양상, 지역적 특색 등 고인돌 연구의 매우 중요한 자료로 그 가치를 인정 받았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향교·객사 문화재 활용사업 순창군 2년 연속 공모 선정

순창군은 문화재청 주관 ‘2021년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과 생생문화재 사업 등 2건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은 지역 문화재에 내재한 역사적 가치를 개발,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모 사업이다.
순창군은 올해에 이어 내년 사업에 선정돼 2년 연속 문화재 활용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순창군은 내년에 순창향교(전북도 문화재자료 제68호)와 순창객사, 삼인대, 신경준의 고지도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